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홍 용 희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e-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저물어가는 2011년,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책무성 위주 유아교육의 문제점: 놀이의 중요성' 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하계 연구소모임과 11월 '유아의 창의성 교육의 이해와 실천' 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셨던 모든 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학회 제 4대 회장으로서 저는 올해 새로 가입하신 신입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회원들께 앞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삶과 교육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각종 육아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본 학회의 설립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늘 성원하고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에는 유아교육·보육의 협력 및 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만5세 누리과정이 공시되었고, 2012년은 만5세 누리과정이 실행·정착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의 내실 있는 정착과 함께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로 인한 그동안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들께 유아교육·보육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적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의 정책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개발과제 및 협력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5년 6월 10일 창립된 이래 본 학회를 이끌어 오셨던 이기숙 회장, 장영희 회장, 정미라 회장을 위시한 집행부 임원들께서는 영·유아들이 생애초기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아 전인발달을 이루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국가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육아지원정책방안을 수립·실행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제4대 집행부에서도 저를 비롯한 임원들께서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과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열정과 역량을 다 발휘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내년 1월에 개최될 동계 연구소모임 그리고 춘·추계 학술대회에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원 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고문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이주호 장관과 진수희 장관은 TV에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가르치겠다고 하였고 8월 12일에는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하였다.

그동안 이 나라에 태어난 만 3,4,5세 유아들이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육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정부가 교육과정이라도 통일해서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는 국가로서 당연히 아니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그것도 만 5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OECD가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 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말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이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며 따끔한 지적도 하였다.

OECD는 “한국은 만 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원화 되어있는 한국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유아기에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인성의 기초 및 도덕성의 기초를 닦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유치원에 못 다니고, 고소득층은 영어 학원부터 보내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미루는 이 때, 만 3,4,5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OECD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영유아기에 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인 헥크만(James Heckman)은 2006년 OECD의 요청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한계 수익률’을 연구한 바 있고, 2011년 8월 10일에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초청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효과적인 투자』에 대해서 열띤 강의를 한 바 있다. 그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적은 돈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 수치로 보고하면서 “현명한 정부라면 초등학교 전단계의 영유아교육을 탄실하게 하여 교육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교육에 투자하거나 고등학교나 대학졸업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영유아기에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7~10배의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하였다.

연령이 어릴수록 뇌발달의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큰 것이다. 같은 세미나에서 기초강연을 한 영국 런던 버벡대학교의 멜휘쉬 교수는 만 3세부터 15년간 성장 과정을 따라간 EPPE(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영유아기의 교육기회 확

대도 중요하지만 유아 교육 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양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유아교육기관과 질적 수준은 높지 않으나 하루 종일 (우리나라의 종일반) 영유아를 돌보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교육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양질의 반일 프로그램에 다닌 유아들이 성장한 후에 정서적 안정감 창의성, 호기심, 자신감, 학업 성취 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영유아들에게 지금까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닐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이 맞추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수준이 높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생애초기에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운영하는 학제를 수립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0~만 6세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면서 출산율을 1.85로 끌어올렸다. 노르웨이도 2006년부터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교육을 하면서 출산율이 1.90으로 높아졌다. 차제에 이번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로 유아교육체제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묘목을 심은 후 땅 속으로 내리는 뿌리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어릴 적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0~5세 영유아 교육의 뿌리를 정비하고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영유아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투자가 “Last in, first out(제일 나중에 정책에 포함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빠진다)”이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Beaty, 이원영역. 교육과학사1998)고 경고한 바 있다. 장래 경제를 일으킬 사람도,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존재도, 창의적으로 일을 해 국민을 먹여 살릴 이들도 지금의 영유아이므로, 헥크만, 멜휘쉬, 비티의 권고대로 이들을 잘 길러내야 한다. 만 0~5세를 거국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영유아 의무교육 또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도 출발점 교육기회를 똑같이 갖게 해주고 양질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자.

1. 학회활동보고

1) 학술대회 - 201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201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1년 4월 30일 (토) 09:00 ~ 16:20
- 장 소 : 경원대학교 새롭관 멀티미디어실
- 주 제 : 뇌 과학과 유아교육의 만남

<기조강연>

뇌 과학의 학문적 동향

- - 조장희 (가천의과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소장)

<주제강연 I >

뇌 과학과 유아의 창의성 발달

- - 최인수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주제강연 II >

뇌 과학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 - 김학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제강연 III >

뇌 과학과 유아교육과정

- -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정미라 (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 박수경 (세살마을연구원 연구 교수)

<종합토론>

- -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

<1분과>

3,4,5세 유아의 조망수용, 마음이론, 교수의도인식, 교수 학습 반응의 발달 및 단계

- 윤장숙 (명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모친에게 정동(情動)을 유발시키는 영아의 음성특징에 관한 검토

- 김연정 (세살마을연구회 수석연구원)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최은희 (글로벌 상의유치원 원장)

<2분과>

반석 어린이집 만 3세반 교사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강경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수학개념에 기초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 이수민 (백석문화대학 전임강사)

현직 교사를 위한 유아동작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 송화진 (다솔유치원 원장)

2011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1월 12일 (토) 09:00 ~ 16:3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B153호
- 주 제 :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이해와 실천

<기조강연>

창의성 교육의 의의 및 유아 창의성의 발달적 특징과 교육적 쟁점

- 이경화 (한국창의력교육학회장,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주제강연 I >

'미래의 스티브 잡스는 누구인가?' : 창의성 측정과 평가, 창의성 교육의 관점에서

- 하주현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주제강연 II >

유아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핵심 개념의 이해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제강연 III >

유아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 최미정 (안산서초등학교 교사)

<종합토론>

- 이윤경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

<1분과>

재미 교포 가정의 두 언어 속 삶

- 한희경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수)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탐구

- 봉진영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2분과>

유아들의 '의미공동체' 형성과 탐색 : 미하일 바흐친의 관점에서

- 이수원 (서울여대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강사)

자연유치원 만 5세아의 그림그리기 활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김혜전 (명지전문대 유아교육과 강사)

<3분과>

가브리엘 뱅상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 그림책과 영화의 관계

- 강은진 (송의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걸음마기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의 반응성

- 고지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2) <육아지원연구> 발간

- 제 6권 1호 발간 : 총 6편 논문
- 제 6권 2호 발간 : 총 7편 논문

3) 2011년 하계 연구소모임

① 제41차 연구소모임

- 일 시 : 2011년 7월 14일 (목) 9:30 ~ 12:2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관B동 252호
- 주 제 : 학력증진에 초점을 둔 미국유아교육의 문제 ; 놀이의 실증
- 발 표 : 정가운 교수, 이수원 박사
- 참석인원 : 50명

② 제42차 연구소모임

-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 9:00 ~ 12:4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관B동 252호
- 주 제 : 학력증진에 초점을 둔 미국유아교육의 문제 ; 놀이의 실증
- 발 표 : 권경숙 교수, 한희경 박사
- 참석인원 : 58명

2. 회 원 등 정

<수상 소식>

- 박은혜 외 3인(2010), 영유아 안전교육, 파란마음 :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이화어린이연구원 프로젝트 '푸른별 지킴이' : OMEP의 ESD 국제공모전 수상
한국 UNESCO의 ESD 공식 인증

<취임 소식>

- 엄정애 : 한국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유치원 원장